

새싹편지 권설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새싹편지 2013년 03월호

지금 유아교육과에서는!

유아교육과, 선도 학과로 선정되다.

우송대학교 7개 대학 35개 학과 중 6개의 선도학과로 유아교육과가 선정되었다. 매년 우수학과로 선정된 만큼 유아교육과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하였다. 앞으로 유아교육과는 학생들의 교수 학습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학습 및 활동의 기회가 많아지고 어린이집 과 유치원의 연계를 통하여 유아교육기관 실제에 대한 이해도도 증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더욱 발전된 유아교육과의 모습이 기대된다.

An Entrance Ceremony

Last Monday, March 4th 2o'clock in the afternoon, we had the Entrance ceremony at the WOOSONG Art Center. This assembly was to welcome the Fresh men to WOOSONG university. Before these student

s just wanted to pass the entrance examination to the university. But now, it is a reality. I hope these Freshmen students will soon achieve their dream of getting a college degree.

3학년 유아체육특강



게임 '볼풀공 서바이벌' 을 하고 있는 3학년 학생들 유아체육특강은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번에 걸쳐 서캠퍼스 체육관에서 시행되었다. 이번 특강은 일전에 했던 특강과는 달리 기본적인 스트레칭을 한 후 유아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들로 이루어졌다.

21일에는 두 팀으로 나누어 할 수 있는 편대형 게임을 했다. 천막을 사이에 두고 상대 팀으로 볼풀공을 넘기는 '볼풀공 서바이벌', 큰 천을 들어 올렸다가 내려서 바람을 가둔 후 상대 팀이 올라가 바람을 빼는 '바람성을 잡아라!' 등 다양한 게임을 했다.

28일에는 네 가지 소도구(액션 후프, 예튜 발바닥,



게임 '바람성을 잡아라' 를 하고 있는 3학년 학생들 액션사이즈 밴드, 스펀지 막대)를 이용해서 신체를 움직여 보는 활동을 했다. 액션 후프를 이용한 활동은 바닥에 놓고 뛰어보는 활동과 신호등의 개념을 활용한 활동을 해보았고 액션사이즈 밴드를 이용한 활동은 큰 고무 밴드로 늘리고 줄어보면서 몸의 근육을 활용하는 활동을 했다.

다양한 게임을 통해 운동도 하고 유아 체육의 실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오랜만에 몸을 움직여서 학생들이 한동안 고생하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운 안타까운 시간이기도 했다.

우리들의 모꼬지



12조가 엠티 장기자랑 연습을 하고 있다.

3월 22일~23일,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5시에 학교에서 출발하여, 한 시간 뒤 금산에 있는 무릉 콘도에 도착하였다. 저녁 식사시간을 가진 후 8시부터 엠티 행사가 진행되었다. 교수님 소개와 유아교육과 행사 소개에 이어 한희경 교수님께서 유아교육과가 선도 학과로 선정되어서 앞으로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접하게 될 활동들과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주셨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난 뒤에는 조별로 1, 2, 3학년이 함께 준비한 장기자랑을 보여 주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실수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거나, 자신의 끼를 보여준 것에 대해 즐거워하며 힘들고 지쳤던 기억을 잊어버린 것 같다고 하였다. 수상은 '24/7' 과 '메뚜기 월드' 를 춘 8조가 일등을 하여 와인을 받았고, 2등은 '영원한 사랑' 과 '캔디' '콩 따리 사바라' 를 쫓



8조가 엠티에서 하나가 되어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던 4조로 과자를 받았다. 3등은 'I Like That' 과 '아름다운 밤이야' 를 춘 9조가 양말을, 4등은 '아잉' 과 '압구정 날라리' 를 보여준 3조로 매니큐어를 받았고, 마지막 수상자 5등은 '사랑은 move' 를 춘 7조가 노트를 받았다. 장기자랑뿐만 아니라 절대음감으로 조원의 끼를, 조장들의 재주를 볼 수 있는 등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장기자랑 시간이 끝난 후, 조별로 방에 돌아가 자유시간을 가졌다. 게임을 하거나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등 학년 간의 사이가 돈독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즐겁게 노는 시간을 보낸 것뿐만 아니라, 천연 립밤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교육적·실용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4학년 실습 OT



3월 25일 월요일 오후 4시, 우송관 506호에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습 OT가 있었다. 이번 OT는

실습 간담회

간담회는 3월 28일 12시부터 2시까지 솔 코리안 레스토랑에서 유아교육과 교수님들과 5분의 선생님께서 참석하셨다.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실습 환경을

실습 준비 막바지에 들어선 4학년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태평유치원 원장님께서 진행하셨다.

먼저 수업준비와 출근 시간 엄수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신 후 수업현장에서의 태도와 배워야 할 점,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만들어두기, 기억에 남는 발문 기록하고 기억하기, 피아노 연습하기 등을 말씀하셨다.

이날 특강을 들은 4학년 학생들은 교육실습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한다. 또한, 그에 힘입어 성실한 실습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만들어주고, 추후 취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으며 교수님들께서는 선생님들께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와 실습에 대해 안내를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셨다.

4학년 교육행정 특강



3월 28일 우송관 506호에서는 실습지로 향하기 전 4학년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모여 푸른유치원 원장님의 “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덕목 및 기본 소양”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개강 후 일주일에 한 번씩 사전 실습을 다니며 분위기를 익혀왔지만, 유치원 조직만이 가진 문화를 이해하고 기관이 지니고 있는 풍토를 익히는 데는 부족한 시간이었기에 실습 동안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특별한 강의였다. 오랜 경력에도 급격하게 달라진 문화로 근래 2~3년이 가장 힘들었다는 원장님은 학생들이 “네”라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대답 잘하는 교사가 되기를 바라시며, 어느 곳에서든 사랑받는 방법들을 알려주셨다.

곧 있을 실습 덕분인지 학생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경청하며 한 시간 넘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자신이 조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점을 생각해본 뒤 각자가 가야 할 곳으로 향했다.

도전 릴레이

POP를 통한 나의 재발견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가지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던 중 POP 자격증에 대해 알게 되었다. 글씨도 약필이고, 그림에는 소질이 없던 터라 ‘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기대를 하고 POP 자격증 2급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다.

POP에 대해 잘 몰랐을 때는 ‘3-B 오보미 그냥 대중 글씨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해보니 쉬운 것은 아니라고 느껴졌다. 따라서 선 굵기부터 글씨체 종류별로 쓰는 것을 배운 후에는 집에서 연습하기 위해 교차로를 모으고 바쁜 학기 중에도 꾸준히 3시간씩 연습하곤 하였다. 마지막엔 창작품을 만들었는데 처음 창작할 때는 붓 모양, 글씨 크기, 글씨체, 글씨 색, 일러스트

위치, 하이라이트, 마카로 꾸미기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나는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레이아웃을 짜는데만 2시간이 걸렸고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데 일주일도 걸렸다. 시험은 3시간 동안 모든 것을 완성해야 해서 턱없이 모자랄 것만 같았는데 실전인 시험 때는 그동안 열심히 한 결과를 보여주는 듯 끝까지 다 완성하고 나왔다. 힘 들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서 점점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동안 많은 노력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부끄럽던 글씨에서 자랑할 수 있는 글씨로 변하게 되었다. 또한 POP가 버스, 가게, 약국, 병원, 미용실 등 주변 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현실에서도 이렇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실용성 높은 자격증을 획득했다는 생각에 보람 찼다. POP 도전기는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는 자기개발의 계기가 되었다.

우송유치원 소식



아이들이 직접 만든 초대장들

누리반 프로젝트

4, 5세 통합 종일반인 누리반은 이번 3월 한 달 동안 특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누리반 아이들이 직접 동화를 제작하고 녹음하여 28일에 공연을 했다. 아이들은 동화뿐만 아니라 초대장도 직접 만들었고, 만들어진 초대장 중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초대장은 3세 종일반인 다솜반 아이들에게 전달되었다.

집단면담

우송유치원에서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에 걸쳐 학부모와 교사 간의 집단면담이 이루어졌다. 면담은 3, 4, 5세반 순서로 약 40~50분 정도 진행되었다. 집단면담

은 아이들의 건강 관련 내용, 부탁하실 말씀, 교사의 교육관, 유치원 운영방침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가로세로 퍼즐

한국사 능력 테스트

	1			2						
								3	4	
1						3				
									4	
6		6								
		7								
8								5		
					7					
				9						
10										

<가로열쇠>

- 1) 고종의 아버지. 쇄국정책을 펼치고 척화비를 세운 인물.
- 2) 1592년~1598년까지 2차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침입한 일본과의 싸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활약이 대표적. oo왜란
- 3) 고려 31대 왕. 개혁군주. 노국공주와의 사랑, 신돈 등용. oo왕
- 4) 고려 중기의 승려로 숙종의 동생. 주전론과 천태종 주장.
- 5) 주몽이 이끈 부여족의 한 갈래가 건국한 나라.
- 6) 돌의 전면 또는 필요한 부분을 갈아 만든 석기로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에 주로 사용.
- 7) 서경 천도, 청제건원하여 송, 금과 대등한 입장을 취하고 금을 치자고 주장. 1년 만에 개경파에 의해 진압된 사건.
- 8) 사립과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단종의 죽음을 슬퍼하고 세조의 찬탈을 비난한 내용)을 그의 제자인 김일손이 사초에 올림. 후에 발견되어 훈구파에 의해 일어난 사화.

9) 하늘의 움직임에 따라 농사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만든 신라시대 천문대. 선덕여왕.

10)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에 따라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으로 한국적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하여 대통령 간선제, 임기 6년, 중임 제한 철폐, 긴급조치권 등의 내용이 있다.

<세로열쇠>

- 1)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주 요령 지방과 한반도 서북 지역을 중심으로 생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 홍익인간을 건국이념으로 한다.
- 2)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비해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 대우로 인해 일어난 군란.
- 3) 일본의 부당한 침략에 항거하는 독립만세운동(기미독립운동). 요즘 아이들은 3번 절하는 날로 잘못 알고 있기도 한다.
- 4)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 5)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무덤 양식. 지석묘라고도 한다.
- 6)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왕위에 올라 사림세력을 많이 등용한 위훈삭제사건. 훈구세력이 분격하고 모략을 세워 중종이 아끼는 사람인 조광조를 제거한 사건. 세 번째 사화. oo사화.
- 7) 제15대 대통령. 1999년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50인 중 공동 1위에 선정되었으며 2000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대통령 성대모사에 꼭 등장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들

담당교수 : 성원경 교수님

학생 : 김진희

김민아 이다영 이정현 조예슬

김예슬 김유리 김지운 박지원

